

# 한국농업 어디로 가야하나?



이태근 회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1. 위기에 직면한 농업

우리농업은 지금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란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서 그것은 한낱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농업·농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다.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밀려 국내 농산물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국내 농업의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요사이 한미 FTA 추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93%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따라서 7%의 소수농민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환갑이 지나 칠순을 앞둔 노부모들만이 남아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마치 농민들이 이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집단인 것처럼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고 농업에 대한 편견과 그로인한 농민 소외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농민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소외받는 계층이다. 게다가 농촌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공급과잉이 농산물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농가소득은 점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수익성이 있는 작목으로 생산집중을 유발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초래되는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다. 우리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족농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협중앙회는 2004년 23조 5,310억원, 2005년 24조 9,851억원의 매출을 올림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중 매출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현대자동차, 3위는 한국전력공사, 4위는 농협, 5위는 LG전자 순이다.

농(農)자를 달고 있으면 대부분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현실인데 농협이 우리나라 기업들 중 매출 4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 300만 농민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쳐봐야 고작 20조 정도인데, 농민 전부가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농협매출이 더 크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방향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지난 3월 31일 우리나라 농업인CEO연합회를 창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민이 656명 있다고 한다. 농림부장관은 10억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농민이 수천·수만 명이 될 수 있도록 농정기조를 만들겠다고 한다. 결국 농업 내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민 중에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민이 있는 반면에 **논 3,000평 정도의 경지면적을 가진 농민은 연매출액이 800만원정도이다. 800만원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하는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있는 농민들에게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혹자는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농민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 재경부차관보는 현재 농민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8% 수준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이고 3% 수준으로 농민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현재 농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300만 농민 중 60세 이상이 거의 65% 수준이다. 이들이 도시의 근로자였다면 아마도 은퇴를 하였을 법한 사람들인데 농촌에 남아 있고 대다수의 농민 계층을 이루고 있다는 이유로 고된 농사일의 주력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의 삶은 어쩌면 농림부의 농정 대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정책의 대상이다. '산업의 역군'으로서 농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농민은 사실 전체 농민의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농업이 이 지경인데도 농민의 숫자를 줄여야 농업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농업을 정확히 이해 못

하는 자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

## 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백화점에서 1리터 짜리 간장을 500만원에 판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독자의 눈길을 충분히 끌만한 이 보도는 우리에게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는 먼저 이 간장이 과연 식품위생법에 따른 생산·관리 규정의 범위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막걸리, 된장, 간장, 김치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곳이다.그러다가 식품위생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집에서 장이나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전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모두 기업들만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종가집 된장의 비법이나 장인정신은 모두 상품화되었고 사실상 전통의 맥은 거의 끊어진 것과 같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EU의 여러 선진국 농민들은 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가 합법화되어 있다. 프랑스 농민들은 자기집 냉장창고에 수십년, 수백년 전의 포도주를 갖고 있고, 이것이 자기집의 전통과 문화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유럽 농민들의 경쟁력이 아닐까? **농민은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기능인이 아니라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사람이고, 자국민의 먹을거리의 다양성과 전통, 안전성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나라 농정은 농민에게 오직 농산물만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다. 대규모 단작화 하여 호주나 미국, 남미의 농민과 같이 규모의 농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이웃 일본의 기술, 생산 방식을 별다른 여과없이 도입하여 활용하여 왔다. 일본처럼 별 내용이 없는 부분을 포장이라는 기술을 활용하여 마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술을 따라하고 있는데, 이는 껍데기 잘 만드는 기술이지 우리농업과 농민의 대안이 될 수 없을뿐더러 소비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농업의 대안은 우리 방식대로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에 투자한 상당부분의 예산이 일본 등 외국의 기술, 자재 도입에 수십조를 날린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 것을 도입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농업정책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누가 이런 흐름을 조장했고 정책을 입안했는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고 그것을 마치 우리의 대안인 양 선전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그동안 외국 말 잘하는 사람이 우리농업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농민, 농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또 다시 농민들을 호도한다면 그것은 위기의 한국농업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 내서는 진정한 농업대안이 될 수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농업의 대안이라는 것에 정부와 농민, 학계 등 여러 계층에게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업이 우리농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생각과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는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해서 승산이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면 우리의 흙과 물과 공기를 살릴 수 있다는 우리 확신이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논에서**

**미꾸라지, 송어,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를 살려내고는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 농촌 환경을 살려 나가는 것이 친환경·유기농업이고 이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진실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농업의 대안을 논할 수 없다. 논이라는 것은 쌀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식품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이 가져야 한다.

석유가격이 70달러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농업의 진정한 희망은 농약, 비료 없이도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유기농업만으로 100% 식량자급을 이루어낸 쿠바의 농업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은 전국민의 참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주말에 골프 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농장에서 내가 먹을 농산물을 재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파트 앞에서 텃밭을 가꾸는 독일처럼 내 농장을 잘 관리해야 환경이 살아난다는 마음들이 있어야 농업이 바로 선다.

우리나라 논 1백만 ha를 지키면 사천팔백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다. 1가족 당 4인이 300평의 논을 가꾸면 1년의 식량이 거기에서 생산된다.

물과 흙과 공기를 지키고 살려내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농업 살리기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제 우리나라 논 전체를 유기농업으로 바꾸는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입되는 농약과 비료를 우리 논에 집어넣는 행위를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에 희망의 싹이 피어날 것이다. 전 국민의 참여로 우리농업에 희망을 만들자.**